

<종교컬럼>

조영석 목사
늘푸른 한인교회 담임



“성경을 사랑합시다” (2)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신명기 17:18-20)

"리더(Leader)는 리더(Reader)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도자는 시대를 읽을 줄 알고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좋은 지도자는 좋은 책을 읽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교육에 있어서 좋은 책을 읽게 하는 것은 교육의 매우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하게 읽어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물론 그 시대를 읽고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까요 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이 시대와 이 시대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르게 읽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올바르게 반응할 때 그런 사람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요 영적인 리더의 소양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2017년에 한 출판사에서 “대통령의 책읽기”(대통령에게 권하고 시민이 함께 읽는 책읽기 프로젝트)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 속에는 대통령과 시민이 함께 읽고 토론할 만한 26권의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박지원의 열하일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마키아 벨리의 군주론, 나시르 가에미의 광기의 리더쉽, 넬슨 만델라의 만델라 자서전, 맹자의 맹자강설 등 이 소개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대통령이 읽어야 할 책으로 어떤 책을 추천하시겠습니까

물론 누가 추천하느냐에 따라 이 책들의 목록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아마도 미국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인 링컨(1809-1865)보고 추천하라고 했으면 단연코 일순위에 성경의 이름이 올라갔을 것입니다

링컨의 정식 학교 교육은 모두 합쳐서 1년 정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책읽기를 좋아해서 먼 곳 까지 가서 책을 빌려 보았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그가 가졌던 책은 성경책 한 권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열 살 때 세상을 떠난 어머니로부터 유언과 함께 물려받은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은 다음과 같았다고 합니다

“내 아들이야 성경책은 나의 부모님에게 받은 것이다 내가 여러번 읽어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의 값진 보배란다 엄마는 너에게 100에이커(12만평)의 땅을 물려주는 것 보다 이 한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더 기쁘게 생각한다 너는 성경의 사람이 되어 다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링컨은 어머니의 부탁대로 성경을 늘 읽고 사랑하며 성경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불행과 실패가 반복되는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1861년 대통령 취임식 석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한 작고 낡은 성경책을 펴고 그 위에 손을 얹은채 선 서를 하며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성경덕분에 대통령이 되어 바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링컨은 전도자 무디가 자신의 교회학교에 그를 초청했을 때에 학생들 앞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의 경험담을 이야기 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잘 읽고 순종하면 언젠가 모두 훌륭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습니다”

링컨은 정말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확신했습니다 성경은 왕과 대통령에서부터 노인과 소년, 부자와 가난한 사람, 유식한 사람과 무식한 사람, 남녀노소 빈부를 떠나 누구나 읽어야 하고 누구나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왕을 요구할 때를 대비해서 주는 지침의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세워야 한다는 것, 타국인을 세워서는 안됨,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교만하게 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19절)

성경은 시간이 있으면 읽고 없으면 안 읽고 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이 좀 뜨거울 때는 읽



고 그렇지 않으면 안 읽어도 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믿음의 교과서입니다 학생이 만약 자기 마음에 안 내킨다고 교과서를 잘 안 읽는다면 그는 좋은 성적을 얻기 가 힘들 것입니다

성경은 왕이 최고의 가치를 두고 읽어야 할 책입니다 최고의 지위에 있는 자가 읽어야 할 최고의 책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자이기에 평생에 늘 자기 옆에 가까이 두고 읽고 사랑해야 할 책이요 순종할 책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수1:8)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밤낮으로 아침저녁으로 읽고 묵상하라고 하십니다 틈만 나면 읽고 묵상할 말씀이 성경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절대적 리더인 모세가 죽고 이제는 자기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땅으로 인도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에 짓눌려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들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통해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주시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재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답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빛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그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고 미래를 향한 영원한 행복의 약속이 있고 무서운 심판의 약속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가에 대한 명확한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사랑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베드로 사도가 말씀 한 것처럼 우리 모두다 “왕 같은 제사장들”(벧전2:9) 이기에 여호수아가 그랬고 이스라엘의 왕들이 마땅히 그래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평생에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들”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들” 이 얼마나 고귀한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높고 귀한 영적 권세가 있는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높고 귀한 영적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가까이 두고 나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하고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인도하심을 묻고 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받은바 은혜와 사랑을 평생에 나누고 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최고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인 것입니다